

# 여수 밤바다를 한 눈에...남산공원 2단계 사업 4월 착수



전망데크·미로공원·야외전시장 등 조성  
진입도로도 추가 개설해 접근성 높여  
자연친화 근린공원으로...2022년 완공

아름다운 여수 밤바다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여수 남산공원 2단계 조성 사업이 본격화된다. 여수의 상징인 아름다운 섬과 호수같은 바다, 섬과 도심을 잇는 돌산대교 등 연륙교 주변 여항과 옛 도심에 한 눈에 즐길 수 있는 남산공원이 시민을 위한 자연친화적 근린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5일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자연친화 남산공원 2단계 조성사업을 올해 착수해 오는 2022년 완공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이를 위한 지역 내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1단계 사업계획에 포함됐던 랜드마크 등 인

공구조물을 제외한 도심공원으로 본격 조성한다. 여론조사 등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1단계 사업을 그대로 있고 민간유치사업인 인공구조물만 제외했다.

지난 2017년 1단계 공사를 끝낸 남산공원은 3년여 만에 2단계 공사를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여수시는 설계 용역, 기술 자문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공원 조성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총 사업비 90여억 원 가운데 올해 55억 원을 투입한다.

2단계 조성 사업은 원도심과 바다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데크,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잔디광장, 야생초화원, 미로정원, 암석원, 숲, 야외미술 전시장 등이 들어선다.

여수시는 진입도로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1단계 사업에서 마무리된 주차장과 진입로 외에 1개의 진입도로를 더 개설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남산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남산초교 앞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

업과 연계 추진됐다. 대규모 붕괴위험지구 재해 예방 사업으로 도로관리사업소가 15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붕괴지 사면 정비와 공원 상단부를 절토하는 등 지난 2015년 2월 착공해 2017년 12월 준공했다.

급경사지 정비사업과 함께 추진된 남산공원 1단계 조성 사업은 여수시가 지난 2015년 3월 8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착공 3년여 만에 2017년 10월 진입로 427m, 주차장 100면(3388㎡)을 조성했다.

이후 2018년 민선 7기 출범 직후 남산공원 2단계 조성 사업 개발 방향에 대한 지역 내 입장이 엇갈리면서 논쟁이 일었다.

여수시는 당시 남산공원 조성을 놓고 '지리적 조건이 우수한 만큼 타워 등을 조성해 관광시설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미 관광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시인 휴식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3.3%가 '자연형 도심

근린공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광형 랜드마크 공원 조성'은 36.7%에 그쳤다. 특히 40대(70.9%)와 50대(70.6%)는 근린공원 조성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거주지별로는 여서동·문수동·미평동이 75.3%로 근린공원 조성 요구가 가장 높았고, 국동·대교동·월호동은 67.1%, 쌍봉동·화양면 65.2%로 뒤를 이었다.

근린공원을 선호한 이유는 대다수(83.8%)가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 조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남산공원을 '자연형 도심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시민 의견을 받아들여 올해 남산공원 2차 조성사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앞으로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입해 남산공원을 조각공원·산책로 등이 어우러진 시민이 행복한 힐링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옥상·베란다 텃밭 활용 도시농업 키우자”

여수농기센터 다양한 아이디어 내

“도시농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용지 부족이다. 주택지 인근에 있는 도시공원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자.”

“옥상·베란다 텃밭을 장려해 농업 관심도를 높이고, 도시농업 부녀회를 구성해 농촌과 자매결연을 하면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여수시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점심시간을 쪼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도시공원 유휴부지 활용, 도시농업 시유지 확보, 전담인력 확충, 옥상·베란다 텃밭 조성 등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졌다.

25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낮 12시 여수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공무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인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재로 '도시농업육성 발전 방안'에 대한 브라운 백 미팅이 열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도 팀장은 “도시농업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시유지

를 확보해야 한다”며 “도시농업은 확장 가능성이 커 도시농업팀 신설과 인력 확충을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김모 주무관은 “노지 텃밭만 고집하지 말고 하우스를 활용해 연중 도시농업을 운영하면 주민의 호응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시농업 확대도 좋지만 보안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모 팀장은 “도시농업의 무분별한 확대는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농작물 경작으로 인한 소음, 악취, 도시미관 저해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인호 여수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도시농업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면 1시간 만에 인원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며 “이날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밑거름 삼아 도시농업을 더욱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올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국비 포함 1억2000여만 원을 투입해 도시농업 전문



지난 21일 점심시간에 여수농업기술센터에서 공무원 30명이 '도시농업육성 발전 방안'에 대해 '브라운 백 미팅'을 진행했다. (여수시 제공)

가 양성, 도시민 가족 텃밭, 학교 도시농부 텃밭 등 한마당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올해 첫 시행 '공익직불제'

### 인터넷·전화로 신청하세요

### 코로나19 여파 접수 방법 변경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공익직불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신청방법을 전환했다. 당초 읍면동 순회 접수를 하려했으나 인터넷·전화 접수로 변경했다.

여수시는 '2020년 공익직불제' 첫 시행을 앞두고 기존 통합신청 접수(경영정보변경+직불신청)방식에서 '선(先) 경영정보 변경, 후(後) 직불신청 신청' 방식으로 개편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월부터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을 받고, 4월부터 직불금을 신청받게 된다.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www.agrix.go.kr)과 전화(061-659-0403)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민은 4월 15일까지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을 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변경 없음'으로 신청해야 한다.

여수시는 당초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여수사무소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읍·면·동 순회 접수 창구 운영을 잠정 연기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읍·면·동별 순회접수 일정은 코로나19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다시 일정을 검토하겠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급속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여수시, 읍면동 자생단체와 연계 폐지 수거 장려금 지원

여수시가 읍·면·동 자생단체와 연계해 폐지(종이박스) 수거 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폐지가격 폭락으로 폐품 수집업자들이 종이박스를 수거하지 않으면서 폐지 줍는 사람들도 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수시와 자생단체들이 시가지 곳곳에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유발해 이를 해소하고자 나섰다.

여수시는 지난 10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수거 지원 자생단체를 모집했고, 시전동 새마을부녀회 등

3개 자생단체를 우선 선정해 지난 20일부터 폐지 수거에 들어갔다. 매일 단가는 kg당 55원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는 종이박스를 수거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효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폐지도 제대로 분리수거하지 않으면 폐기물이 되는 만큼 가정에서는 배출 전 종이박스를 납작하게 펴고, 오염물질이 묻은 종이류와 영수증같은 재활용이 어려운 것은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등 올바른 분리수거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시는 지난 20일부터 '폐지 수거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 815

## 한국 금융의 힘

#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사채 정리 운동 실시 기간**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p><b>대상자</b> 신협 내부사기(신용등급 등)를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p> <p><b>대출한도</b> 최대 1,000만원 이내</p> <p><b>대출금리</b>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p>	<p><b>대출기간</b>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p> <p><b>상환방식</b>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p> <p>※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p> <p><b>필요서류</b>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류, 기타 필요 서류</p>
---	---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